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9~11/2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가시를 거두세요	광우	쌤앤파커스
2	금강경선물	박혜상	불교신문사	7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3	매일매일 천수경	동명	조계종출판사	8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자현	불광출판사
4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륜	정토	9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원철	불광출판사
5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	10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6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맑은소리맑은나라 월호	
2	들숨 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	초기불전연구원	대림 스님 옮김	7	부처님의 당부	사유수	비구 보디/등현 감수
3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운주사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8	흔들릴땐 마음수업	모과나무	법상 글/고통달 만화
4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9	육조단경	광륜출판사	청화 역주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10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향기로운이야기	불교신문사	법정/김계윤 그림

도영 스님의 "주인으로 사는 길"



어울리면 열리는 길
도영 스님 지음
효림 / 1만2000원

지식·정보 시대 고립된 현대인
성찰로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
"불교 윤리·청정성 회복 필요"
연재 법문·상좌와의 대화 엮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교적 윤리는 인간이 본래 지닌 청정성을 믿는 데서 출발하며, 그것을 일상에서 구현하려는 지속적인 실천이다."

11월 20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유작이 된 법어집 〈어울리면 열리는 길〉에서 불교적 윤리와 청정성 회복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스님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 오히려 진정한 만남과 소통은 상실한 채 고립되고 단절의 감각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모순은 결국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도록 만든다"며 "나의 행복과 안녕이 타자의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자각이 바로 불교적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불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소외와 고립, 경쟁과 배제의 문제를 성찰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인간을 독립적이고 고립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존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불교적 삶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의 깨달음이 곧 타자의 깨달음과 맞닿아 있음을 자각하는 데 있다."

1부 '주인되어 살자'는 지난해부터 월간 〈법공양〉에 연재한 법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부처님과 옛 고승들의 일화에 스님이 수행하며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곁들여 불교의 핵심을 설명한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금산당 도영 대종사는 법어집 〈어울리면 열리는 길〉을 통해 불교적 윤리와 청정성 회복을 설파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부 '본래 청정과 불교적 인간'은 도영 스님이 상좌 법진 스님과 평소 나눈 대화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이다. 초기불교의 연기와 중도 사상, 대승불교의 반야중관 사상과 여래상 사상, 중국 선종의 가르침이 모두 '인간 본성은 원래 청정하다'는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밝히고, 중도와 바라밀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열반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영 스님은 "세상과 단절된 자아는 끝내 닫힌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계와 인연 속에서 어울림을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의 삶을 열어가며, 동시에 타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불교적 윤리의 길 위에서 자신과 타자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깨닫게 하다



금강경 직지설법 1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김태완 원장의 〈금강경〉 강설
공부·체험 바탕 '깨달음의 길'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이다. 저자는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켜 보여 주고자 한 것, 즉 '모든 것의 바탕인 본래 마음'과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알도록 다양한 비유와 설명으로 안내한다. 경전 구절을 하나씩 풀이하며 법이 설해진 배경과 의미를 밝힌다.

'대승정종분' 해설에서는 "〈금강경〉이라고 하면 대게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같은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는데,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이 선(禪) 공부가 바로 대승 불법의 바른 공부법이고 지름길이다. 매일매일 법회 참석하고 법문 듣는 것이 깨달음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금강경〉 강설집의 1권에는 법회가 일어난 인연을 밝히는 '법회인유분'부터 바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존중정교분'까지의 설법이 담겨 있다. 앞으로 출간될 2권은 '여법수지분'에서 '구경무아분', 3권은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 실릴 예정이다.

저자는 동국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조사선의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스승인 박홍영 거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선을 참구하기 시작했다. 2001년 부산에서 무심선원을 개원해 수행자들을 이끌고 있다. '현대인을 위한 선어록 읽기' 시리즈와 '선으로 읽는 경전' 시리즈 등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여수령 기자

우리 시대의 불교를 다시 묻다



불교 이후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운준사 / 3만원

오늘날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 최근의 '힙불교' 열풍뿐만 아니라 명상을 향한 대중적 관심, 이웃 종교와의 활발한 교류, 기후 위기와 인권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과거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재적 의미로 되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Stephen Batchelor)의 〈불교 이후〉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한국·인도서 수행한 불교 사상가
형이상학 불교에서 경험의 불교로
세속 시대를 위한 불교의 재해석

저자는 1974년 21살의 나이에 출가해 7년간 인도, 스위스, 독일에서 티베트 겔룩 전통의 스승들과 수학했다. 1981년 5월에는 송광사에서 방장 구산 스님의 지도로 선불교를 수행했다. 이 같은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저자는 불교를 다시 '지금 여기의 삶' 속에서 읽어 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책의 근본적 질문은 단순하다.

"현대 세속 사회에서 불교의 다르마(법)를 어떻게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는 불교를 초월적 신념이나 형이상학적 진리 체계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지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가 특정한 교단 구조나 신화적 권위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 시대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전통적 사성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 '네 가지 과제(The Four Tasks)'에 집약된다. 그는 사성제를 고통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고, 평정 속에서 행동하며, 그 길을 지속하는 수행의 과제로 재구성한다. 이는 깨달음이 초월적 경지가 아닌 당장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태도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불교를 '궁극적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로 이해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공성(空性)의 개념 또한 초월적 실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감수성, 즉 "이 땅에서 깨어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또한 불교를 절대화하거나 신비화하려는 시도 대신, 구체적 경험에서 시작하는 '세속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속'은 단어의 본래 의미인 '이 시대, 이 세계'이며, 이는 불교가 내세보다 지금의 세계에서 수행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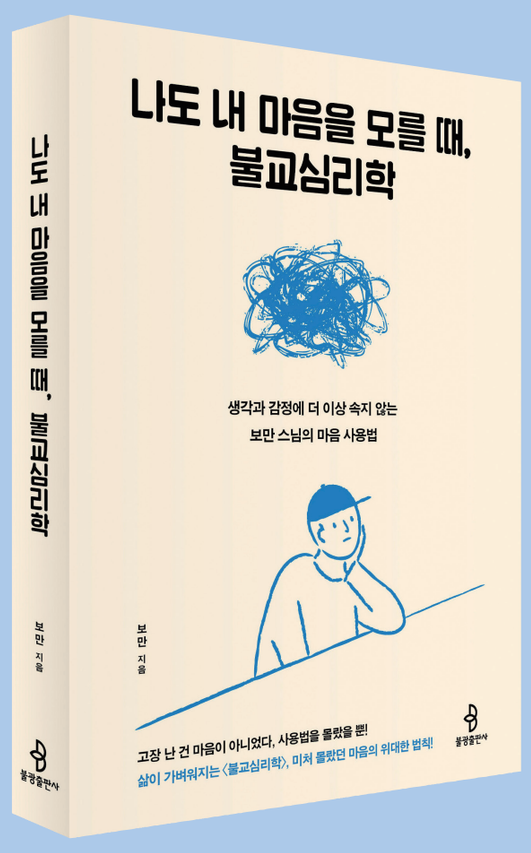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인류가 마주한 문제에 불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수행자로서의 진지함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함께 담겨 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송광사에서의 경험은 이 책에 제시된 불교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었다"며 "화두 수행은 의심(疑心)의 중심성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이는 다양한 불교적 실타래들을 '세속 다르마'라 부르는 것으로 엮어 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 화제의 베스트셀러!
출간 즉시 교보문고·YES24 종교 분야 1위!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